

- 어린이날을 맞아 부모님들께 드리는 글

1922년 제1회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올해 벌써 70회의 어린이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날이 언제, 어떻게,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저 하루 잘먹이고 사달라는 것 다사주고 어린이 대공원이라도 한번 나가주면 되겠지'하고 계획하시는 부모님이 있다면 올해 어린이날에는 왜 어린이날이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해야 정말 우리 어린이들에게 의미있는 진정한 어린이날을 맞게 해 줄 수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어린이날이 소파 방정환이라는 선각자 한사람의 어린이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정 경위나 당시 사회적 상황을 살펴보면 어느 개인의 혼자 힘으로 그리 되었다기 보다는 우리 역사와 우리 시대가 어린이들에게 주는 고통과 억압을 없애기 위한 사회적 움직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어린이 날이 제정되게 된 시대 상황은 일제의 식민지 치하에서 온나라가 신음을 겪고 있던 어려운 때였습니다.

조선인이면 모두가 당하고 있던 고통에 어린이들은 '장유유서'라는 유교적 질서와 그에 더해 식민지 상황의 일반적 어려움, 그리고 그런 고통에 짓눌리는 어른들의 무관심까지 가중돼 독립된 인격체로서가 아니라 어른을 위한 존재로 눌러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어린이를 인격적으로 예우하며 또한 3.1운동 이후 전개된 국권회복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어린이가 살아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전제하에 사회운동의 한부분으로 어린이 운동이 전개됩니다. 이 운동은 소파 방정환에 의해 널리 확산되었는데 소파에게는 '어린이도 한울님과 같이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아이를 매질하지 말라, 아이를 매질하는 것은 곧 한울님을 매질하는 것이니라'라는 천도교 사상이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때 소파는 '항상 10년후의 조선을 생각하십시오'라는 유인물에서 한가정, 한사회, 한나라의 장래는 어린이를 어떻게 가르치고 바르게 인도하느냐에 달렸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도 현존하고 있는 '색동회'를 구성하고 각계에서 '불교 소년회' '소년소녀 운동연합' 등 많은 단체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일제는 우리의 이런 어린이 운동마저도 압살하여 1935년 이후에는 어린이날 행사조차 금지시켰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 다시 어린이날 행사가 제게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처음 어린이날이 만들어졌던 일제 식민지치하와는 시대적 상황이 많이 변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이 더욱 인격적으로 대우받고 물질적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나 곰곰히 생각해 보면 어린이들이 사회 곳곳의 위험성속에 노출되어 어린이 자신은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여러가지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혹 어느분은 '지금같이 애들에게 좋은 세상이 어디있어?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천지에 널려 있지. 어른 공경할 줄 모르고 지들 마음대로 행동하지'라고 말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같은 점이 우리 어린이들이 처한 고통의 현장인 것입니다. 단지 물질적으로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최선일까요?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병든 인간으로 만든 책임은 어린이에게 있는 걸까요?

요즘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여러 사회적 병폐들은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전적으로 우리 어른들과 사회의 책임입니다. 도처에 널려 있는 왜색 비디오, 각종 텔레비전 광고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물질우선주의, 자식사랑으로 교묘히 위장되어 어린이들을 제단하는 사고들, 이학원 저학원, 이 교육 저교육으로 지칠대로 지쳐버린 우리 아이들.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으로 우리나라의 장래를 짊어져야 할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해줄 수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5월5일만이 아닌 1년 열두달 365일이 어린이날이어야 합니다. 항상 애정과 관심으로 어린이들을 바라 보아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장난감이나 과자가 아니고 어른들의 따뜻한 관심이기때문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가지는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저희 지역사회탁아소 연합회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초등지회, 참교육학부모회 등 어린이 관련단체들이 모여 지속적인 고민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어린이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해주자'는 어린이날이 아니라 어린이와 하루를 온전히 함께 지낼 수있는 사랑이 충만한 어린이날이 되도록 해줍시다.

우리 어머니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은 대부분 규모가 작은 영세 업체들로서 근무조건도 몹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한 공휴일 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하루를 쉬면 며칠치의 일당이 깎일텐데, 하고 걱정하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며칠치의 일당보다 더욱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바램, 올해 어린이날엔 회사에 당당하게 요구합시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법정 공휴일을 지키자"고. 그래서 온가족이 함께하는 어린이날을 맞아보면 어떨까요?.

어린이날이 처음으로 제정되었던 1923년 발표되었던 '어린이날 선언문'은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도 시대적 상황은 변하였지만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 생각되어 함께 실습니다.

— 어 린 이 날 선 언 문 —

1923년 5월 1일

(어른에게 드리는 글)

1. 어린이를 내려다 보지 마시고 쳐다 보아 주시오.
1. 어린이를 가마이 하시어 자꾸 이야기 하여 주시오.
1.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
1. 이발이나 목욕, 의복같은 것은 때맞춰 하여 주시오.
1.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시오.
1. 산보와 원작같은 것을 가끔가끔 시켜주시오.
1. 어린이를 책망하실때는 성만내지 마시고 자세자세 타일러 주시오.
1.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만한 놀이터와 기관같은 것을 지어 주시오.
1. 대우주의 뇌신경의 말초는 늙은이에게 있지 아니하고 젊은이에게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이들에게만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여 주시오.

(어린이들에게)

1. 돈은 해와 지는 해를 반드시 보도록 합시다.
1. 어른에게는 물론이고 여러분끼리도 존대하도록 합시다.
1. 뒷간이나 담벽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같은 것을 그리지 말기로 합시다.
1. 꽃이나 풀을 꺾지말고 동물을 사랑하기로 합시다.
1. 전차나 기차에서는 어른에게 자리를 사양하기로 합시다.
1. 입을 꼭 다물고 몸을 바르게 가지기로 합시다.

지 역 사 회 탁 아 소 연 합 회